

카 라이프

바캉스 후 차량 점검

바닷가 다녀왔다면 고압세차 염분 제거 소음·진동 생겼으면 볼트·완충고무 점검

산으로 바다로 즐거운 휴가를 보냈지만 휴가가 끝난 뒤 '바캉스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썬욕 휴가기간이 짧아 아쉽고 피로도 쉽게 풀리지 않는다. '바캉스 후유증'은 여행의 동반자였던 자동차도 겪는다. 교통체증은 물론 폭염과 폭우, 바닷가의 소금기, 비포장도로 등에 시달려 곳곳이 성하지 않다. 이를 방지하면 차량의 수명이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를 오래 사용하려면 휴가 뒤 반드시 점검하라고 지적한다.

보쉬의 자동차 정비전문점 '보쉬카서비스(BCS)'의 도움을 받아 바캉스 후 차량 점검법을 알아봤다.

◇바닷가 염분, 차체 부식 원인=바닷가를 다녀왔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염분이 차체를 부식시키고 도장을 변색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압세차로 차체 하단부와 구석진 곳까지 충분한 양의 물을 사용해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모래나 먼지가 많이 묻은 자동차를 걸레로 닦으면 미세한 흠집이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로 흘러보내야 한다.

또 장거리 운행을 할 경우 차량 내부에서 음식을 먹는 일이 많은데, 음식물 부스러기 등은 곰팡이균을 서식시키고 불쾌한 냄새의 원인이 되므로 차량 내부 청소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트렁크는 텐트, 우산, 각종 레저 장비 등 잡다한 물건을 싣기 때문에 각종 악취가 배기 쉽다. 시트를 들어내고 진공청소기를 사용해 말끔히 청소해야 냄새가 없다. 트렁크 속 예비 타이어까지 꺼내 습기를 없애면 곰팡이냄새 등 잡냄새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다.

◇오일류 점검은 필수=뜨거운 여름철 장거리 운행을 한 경우 오일류 점검은 필수다. 무더운 날씨에 장거리를 운행했다면 오일이 새거나 기포가 생겨 양이 줄고 묽어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엔진오일과 브레이크오일 등을 체크한 뒤 이상이 있으면 교체해야 한다.

산악도로나 비포장도로를 달렸다면 차체하단부가 돌같은 장애물에 부딪혔을 수 있다. 작은 돌맹이지만 달리는 차량이 받는 충격은 크다. 차체하부가 충격으로 인해 오일이나 물이 새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비포장도로를 오래 달렸을 경우 휠과 타이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만큼 휠 얼라인먼트와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젓은 정체, 브레이크 점검=휴가철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게 된다. 정체가 잦으면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밟게 된다. 뜨거운 노면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밟으면 라이닝과 패드가 가열돼 제동력이 약해지는 '페이드현상'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급제동을 하면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줘야 한다. 특히 긴 내리막길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을 경우 반드시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를 점검해야 한다.

◇소음·진동 있다면=휴가철 이동이 잦아 보면 작은 손상 및 균열 또는 접촉사고 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균열 등 손상 부위가 작다면 보수용 페인트나 미세한 입자의 컴파운드로 보수를 한 후 확실히 입히는 방법도 요령이 될 수 있다.

이전에 없던 잡음이나 진동이 생겼다면 각 부위 연결 볼트와 완충고무를 점검해야 한다. 비포장도로같은 험한 지형을 운행할 경우 볼트가 다소 풀리고 진동을 흡수하는 완충고무도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바캉스 후유증'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겪는다. 여름휴가 때 장거리 운행을 한 차량은 휴가 뒤 반드시 점검해야 오래 탈 수 있다. (기아차 광주서비스센터 제공)

“녹색성장위 자동차 연비 규제안 국제기준에 미흡”

박심수 고려대 교수 주장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4월 제시한 자동차 연비 및 자동차 온실가스(CO₂) 규제안이 국제 기준과 비교할 때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심수 고려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주유소협회가 의뢰한 '연비규제 대응 수송용 연료 믹스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녹색성장위는 2015년까지 연비를 17km/ℓ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140g/km 이하로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자동차 제작사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녹색성장위가 제시한 온실가스 규제 기준은 미국을 모범으로 삼은 것이어서 이를 적용할 때 유럽연합(EU)이나 일본에 비해 CO₂ 저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지적됐다.

박 교수는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비 및 CO₂ 측정 모드는 시내주행모드(CVS-75)지만 미국식 측정모

드는 시내주행모드에 고속주행모드를 결합한 모드(Combined Mode)다. 고속주행은 시내주행보다 연비가 좋아서 두 가지를 합한 연비는 시내주행모드만 계산한 연비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박 교수는 미국식 측정모드를 적용하면 15~18% 정도 연비를 높여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식 측정모드로 계산한 2015년 목표치 기준(연비 17km/ℓ, 온실가스 140g/km)을 현행 시내주행모드로 환산할 경우 연비는 14.8km/ℓ, 온실가스 배출량은 160g/km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EU가 2015년 목표로 삼은 온실가스 배출량 120g/km이나, 일본이 2015년 목표로 삼은 연비 기준 16.8km/ℓ에 못 미치는 것이라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박 교수는 강화되는 자동차 연비규제에 대응하려면 경·소형차에 대한 세제지원과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고, 연비가 좋고 CO₂ 배출량이 낮은 클린디젤 차량의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폭우시 차량 운전·관리 요령

침수땀 배터리 전극부터 분리 침수차량은 견인차로 옮겨야 비올때 가장자리 차선이 안전

최근 햇볕이 쨍쨍 쬐다 기습적으로 소나비를 퍼붓는 '퍼퓸이 폭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장성, 영광, 담양 등에서 순식간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면서 차량이 휩쓸리거나 침수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발표한 폭우시 차량 운행과 침수 대처 요령을 소개한다.

◇침수땀 배터리부터 분리=차량 바닥 위로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터리 단자를 제거한 후 견인차량을 이용해 가까운 정비업체로 옮겨야 한다. 이때 스스로 이동하려고 시동을 걸면 고가의 전기부품이 손상돼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차량 밑바닥만 잠긴 경우도 배터리 단자를 제거한 후 수돗물을 이용해 오염된 부위를 깨끗하게 씻고 말려야 한다. 또 엔진오일을 점검하고 에어리너 커버를 열어 물이 유입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침수차량 어떻게 할까=침수차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녹이나 곰팡이 등이 확산돼 다른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물 밖으로 옮겨야 한다. 이동할 때는 반드시 견인차 또는 견인장비를 이용해야 한다. 인양 후에는 배터리 전극부터 분리해야 한다. 컴퓨터와 같은 고가의 전자·전기장치와 제어장치 등을 누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

해서다. ◇침수지역 통과할까 돌이갈까=침수지역을 통과할 때는 승용차는 바퀴의 3분의 1 이하, 트럭은 타이어의 절반 이하만 잠길 때 주의해서 통과한다. 이때 저속으로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한다. 속도를 높일 경우 물을 밀어내는 차량 앞부분의 수위가 높아져 차량 내부로 물이 유입될 수 있다. 침수지를 통과한 후에는 저속주행을 하며 브레이크를 반복해서 밟아 브레이크 장치를 건조시킬 필요가 있다. 브레이크 장치는 방수가 되지 않아 물이 유입되면 마찰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 올때 가장자리 차로 이용=비가 올 때는 맞은편 차량에 의한 물벼락 또는 전조등 불빛으로 시야가 방해될 수 있으므로 1차로보다는 가장자리 차선이 더 안전하다.

또 깨끗한 시야 확보를 위해 와이퍼 브러시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타이어의 마모가 심해 홈(트레드)의 깊이가 낮으면 배수능력이 떨어져 제동력이 약해지므로 교체해야 한다.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 수막이 형성돼 제동력과 조향력이 떨어지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조등을 켜서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리창에 생긴 배터리를 이용해야 한다. 유리창에 생긴 습기는 에어컨을 가동해 제거하고, 공기유입은 외부공기를 선택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jipark' (하이파크) restaurant.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chef in a white uniform and a black hat, with a large white speech bubble containing the text '건강한 맛, 고품격 메뉴, 품격있는 서비스' (Healthy taste, high-quality menu, dignified service). Below the main image are several smaller images of various dishes. At the bottom, there is contact information: '하이파크리서치' (Hajipark Research), phone number '062-671-1189', and a website 'www.haipark.com'. There is also a small logo for 'Hajipark' in the bottom right corner.